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예수 성탄 대축일]

2009년 12월 24일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심윤필 베르나도, 황권희 클라라

다음주 독서: 미정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강선우 마르가리따

이번주 미사 해설: 유지원 카타리나

다음주 미사 해설: 함승호 베네딕다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유현영 사도 요한

친교실 정리: 2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135

달력판매: \$ 111

교무금: \$ 200

합계: \$ 446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추후 공지

예비자 교리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사제관, 김 아셀라 수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복음 계속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 <오늘의 묵상>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 등록을 위해 본적지로 갑니다. ‘나자렛’을 떠나 남쪽의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를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토록 기다려 왔던 메시아의 탄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거처를 구하지 못해 아기를 구유에 눕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표징’이 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이렇듯 세상에 오신 구세주의 첫 모습은 초라했고, 그분을 알아보는 목격자들 또한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화려한 성탄절보다 소박한 성탄절을 ‘염두에 두어야’ 할 이유입니다.

모르는 새 우리는 ‘장식의 덩어리’에 빠져 있습니다. 내적 준비보다 외적 치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본질보다 ‘겉모습’에 매달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의 길은 겉모습이 좌우하지 않습니다. 내적 은총이 좌우합니다. 삶의 ‘겉데기’에 매달렸기에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소박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고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밤은 복음의 목자가 되어 구유 앞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제2독서> 티토서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화답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 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 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 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니,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 알렐루야.

+ 루카 2,1-14

복 음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영성체송]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오늘의 성가] 입당: 108 봉헌: 103 성체: 99 파견: 102

† <2009 성탄 메시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요한 1,4).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의 은총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믿음과 화해를 바탕으로 하루빨리 함께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평화의 하느님께 기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사람을 비추시는 참 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요한 1,9 참조).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하며 환호합니다. 성탄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느님께서 어리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비천한 인간이 되셨습니까? 예수님 강생의 신비를 통해 우리는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세주 강생에는 가장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탄은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구원 사업의 시작이며,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더구나 하느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 생명의 신비를 일깨워주십니다. 생명은 현세적인 차원을 초월해 하느님의 생명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생명은 이 세상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과 존귀함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이 개발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뀔 정도로 외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어떨습니까? 과거에 비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내면의 풍요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중심적 삶이 팽배해 다른 모든 가치관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생명경시 풍조는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년 높은 수치로 증가하는 낙태와 자살률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핵가족 개념의 확산으로 인구의 절대 수 감소의 위기를 맞아 최근에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이유와 편의를 위해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효율성을 이유로 더 큰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생명을 쓸모없는 생명, 또는 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경제 성장을 앞세워 출산억제를 강조하며 낙태를 실질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 안락사, 인간 생명인 배아를 실험 조작하는 행위등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또 이를 법적으로 합리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생명은 하느님께 속하는 것이며 “인간 생명을 공격하는 것은 하느님을 공격하는것”(교황 요한 바오로 2 세 회칙 [생명의 복음] 9 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생명의 문화를 펼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한 인간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의 장이 되며 생명경시 풍조는 더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향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삶을 살 때 생명의 문화가 꽃피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입법에 종사하는 분들은 생명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명 문화 건설을 위해 우리 신앙인부터 가정과 사회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밝고 희망찬 곳이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다시 한 번 기뻐하며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 <알려드립니다>

- ❖ 내일 오전 10시에 사제관 (4710 Regent St #81B) 에서 성탄 대축일 미사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성당 달력이 나왔습니다. 매주 미사후 지하 친교실에서 1부당 \$5 (2부 사시는 경우 \$8)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 ❖ 지난 4주간 Food Drive 를 통해 모은 음식과 생필품을 지난주에 Multicultural Center Food Pantry에 전달하였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오늘 성탄 저녁 행사를 위해 Oriental Food Mart (Park St.) 에서 과일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12월 26일 주일 미사중에 매월 마지막주에 있는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이번달부터 연말까지 모아지는 2차 헌금은 우리 공동체가 매년 St. Paul 본당에 내는 성당사용료 (\$2000 - \$3000) 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입니다. 2차 헌금을 위한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